

2020 주일메세지

바깥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속사람의 힘

1. 유월절

[출애굽기 12:13-14]

13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 남을 것이다.

14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유월절 절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위의 말씀이다. 세상으로 표현되는 애굽을 향한 강력한 심판이 '장자, 즉 처음 난 것이 죽는 심판'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재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10가지 재앙이 닦친 애굽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었다고 생각해보라. 끔찍한 일이다.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재앙과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비교할 수 없다.

특히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재앙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왜 '유월절'을 주목하게 하셨고 다른 어느 때보다 유월절 절기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지난 15일 유월절 절기가 끝이 났고, 그 이후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2. 외부 vs 내부

유월절 절기가 오늘날 재앙이 덮고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장자가 죽는 엄청난 재앙이 외부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재앙을 피하여 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외부는 엄청난 재앙이 있었지만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집의 내부는 안전했다는 것이다.

유월절 양의 피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어린 양의 피'를 예표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당시 문설주에 발라졌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발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을 넘게 할 수 있었던 (passover) 오직 한 조건은 어린 양의 피였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언도된 사의 영향력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과 같은 출애굽과 유월절의 사건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성도의 외부와 겉은 '죽음, 환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어린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우리의 내면은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외부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다.

3. 속사람의 능력

[고린도후서 4:7-10]

7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8 우리는 사망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9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10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보물을 질그릇에 담고 있다고 바울은 말한다 (7절). 그래서 외부적으로 죄어들어 움츠러들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심지어 거꾸러짐을 당해도 움츠러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말한다. (8-9절)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만 예수의 죽음 당하심, 즉 그분의 피가 유월절 문설주에 발라진 피처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10절).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외부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선포한다.

[고린도후서 4:16-18]

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17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18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외부적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겉사람은 두렵고 위험에 노출되고 어렵지만, 속사람은 그 속에서 새로워지며 강건하기 때문이라 말한다. 그래서 결국 보호된 속사람은 외부의 어려움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을 바라본다고 말한다.

4. 어린양의 보혈로 마음을 경작하라.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출애굽과 같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외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집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외부적인 어려움이 올 때 성도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마음을 경작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늘로부터 힘이 부어진다. 외부적으로는 너무 힘들지만, 알 수 없는 힘과 평강이 마음을 덮는다. 상담으로도, 책을 읽어서 좋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죽음을 이기신 실재의 힘이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능력이다.

5. 어린양을 예배하라.

[요한계시록 5:12]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어린 양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어린 양을 경배한다. 그들의 경배의 내용을 보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이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다. 그 피가 권세, 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양을 받게 하셨다.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다. 이제 우리가 죽음 당한 어린 양의 보혈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권세, 부, 지혜, 힘을 주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외부적으로 어려운 이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속사람을 경작하라. 그리고 어린 양을 예배하라. 마지막 모든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투명 유리바다에서 경배할 찬양이 어린 양의 노래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지금은 내면을 경작해야 할 때이다. 그 경작이 매일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